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어떻게 조성되나

항공기·조선 등 차세대 성장 이끌
첨단부품 소재 산업의 場 만든다

건설교통부와 광주시, 전남도, 한국토지공사는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전남 국가공동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 이용섭 건교부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김재현 한국 토지공사 사장. /연합뉴스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이하 공동산단)'이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중심 산단으로 조성된다.

이용섭 건교부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산단 조성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로써 공동산단은 시·도의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수요·타당성 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 협약 체결

우선 꼽히는 공동산단의 강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조성될 공동산단은 명칭 그대로 '국가'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산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동산단의 부지 규모는 1천653만㎡(500만평)로, 오는 2014년 사업완료시까지 국비 1조8천50억원의 투입될 예정이다. 시와 도는 산단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맡게 됨으로써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동산단은 규모면에서 '매머드급' 산단이다. 산단의 규모는 광주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8개 산단의 부지를 합한 것과 맞먹는다. 광주시의 총 산단 부지 규모는 1천900만㎡이다.

현재 이들 산단에 5만 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1천800개 업체가 있다는 입주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동산단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이들 업체가 지난해말 현재 1조4천400억원의 매출, 수출액 62억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산단의 지역 경제 기여도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공동산단은 취약한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단 유치 대상 기업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자동차, 조선, 항공기 관련 첨단 부품 소재산업 ▲나노· 광산업 기반을 활용한 센서 로봇 산업 ▲생물산업 기반 신약, 의료, 제약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하나같이 차세대 성장 유망 산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무안공항 이용 관광상품 뜬다

홍도·흑산도 등 전남 여행상품 5개 선정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홍도와 흑산도로 놀러 오세요."

외국인들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홍도와 흑산도의 비경을 보게하는 여행상품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남도는 7일 "무안국제공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 전남도 여행상품'을 공모한 결과, 모두 8개 상품이 접수돼 이중 5개 여행상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인바운드 분야에서 'KO & C 여행사'의 '한국의 보물, 다도해 홍도 & 흑산도 섬 투어', 인트라바운드 분야에선 '남해관광여행사'의 '남도항공 그린투어'상품이 선정됐다. 홍도&흑산도 섬투어는 중국 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홍도와 흑산도를 둘러보고 목포 등 전남 일원을 관광하도록 하는 여행상품이다. 또 '남도 항공 그린투어'는 수도권 골퍼들이 무안국제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남도지역 골프장에서 제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라운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수상에는 ▲싱가포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 방한상품'(우송관광)▲일본 관광객들이 맛의 고장인 전남과 종합도시인 서울을 체험하게 하는 '도쿠시마 무안 교류차타'(세방여행)▲미주여행객들이 전남·북을 돌게하는 '호남문화기행'(삼호투어) 등 3건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각 600만원, 우수상은 각 300만원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급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담양 출신 고광순 의병장 '불원복 태극기' 문화재 등록

구한말 담양 출신 고광순(1848~1907) 의병장이 사용했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독립기념관 보관)〈사진〉가 근대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태극기를 선정, 올 8~9월께 근대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원복 태극기를 비롯해 상하이 임시정부 태극기, 백범 김구 서명 태극기, 한국 광복군 서명 태극기, 멕시코 한인사회 태극기(국사편찬위원회), 6·25 전쟁 당시 미국 해병대원이 기증한 태극기(하남 역사박물관) 등이 등록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월 중순까지 현지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주요 태극기를 선정해 6월께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불원복 태극기는 가로 129㎝·세로82㎝이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의 '불원복'이란 빨간 글씨가 태극 위에 쓰여져 있다. 고광순 의병장이 지난 1907년 지리산 연곡사에 마련한 의병 군영 앞에 내걸었으며, 일본군과 전투 때 사용됐다.

한편 고광순 의병장은 을미사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의 교전 중 구례 연곡사에서 전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해역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

해수부, 2011년부터 시행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여파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된다.

태안앞바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돼 있지 않아 선박 충돌 또는 좌초시 선체파손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영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국제협약에 따라 중질유의 경우 2005년부터 운반이 금지돼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폭설피해 보상 '막막'

피해액 41억 …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포함 안돼

지난 연말 '눈 폭탄'을 맞은 광주·전남 지역의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나흘 간 내린 폭설로 피해 금액이 모두 41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농가의 피해 금액은 전체의 약 90%인 37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재작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사과, 배, 포도 등 11가지 주요 과수 품목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매년 3~4개 품목씩 늘려 2011년까지 농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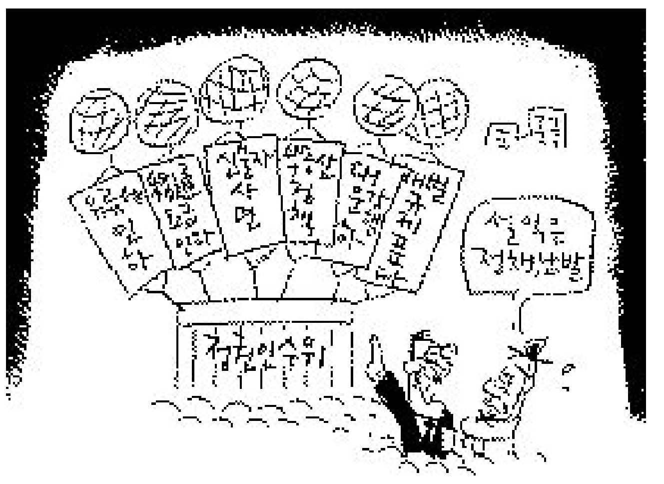
정부의 복구지원금도 산정 기준과 절차가 복잡한데다 대부분 융자 형식으로 지원돼 이 또한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처지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는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돼 보험을 통해 시설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축사 등 약 108ha와 주택 2채 및 공장 4동이 폭설로 무너졌으며 복구율은 전남 74.5%, 광주 0.9%를 기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두



過猶不及… 들어는 봤나 몰라

전남·경남·부산·여수시 민간단체
박람회 성공개최 남해안권 발전 협의체 구성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여수시 민간단체들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한 '남해안권 공동발전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남지방유치위원회'와 '수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는 8일 여수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남해안권 공동발전 민간협의회'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족식에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협조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해양수산부 존치 등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일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주관하는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요청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BBK 특검' 특별검사 정호영 변호사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의 특별검사로 정호영(60·사진·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정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05~200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명 서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일동은 해양수산부 존치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슬로건처럼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 주변 선진국들은 가속화되는 식량,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해양경영에 국가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 1996년 해양수산부를 발족하고, 11년여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힘차게 달려왔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해양시대를 주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7,500여 회원 일동은 해양수산부 존치는 물론 기능과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대형 국책사업 이행기반 마련과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및 개최", 태안유류사고 사후 복구 및 보상, 전국 항만의 재개발을 통한 물류기지 건설 등 해양력 세계 10위 국가의 위상제고와 새로운 해양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

둘째, 우리 연합회는 회원이 전국 대비 50%를 차지하는 수산도로 수산정책의 상대적 소외와 발전 위축의 가능성이 높아 7,500여 명의 회원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존치를 희망한다. 선진국형 해양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 해양이용행위간 합리적인 조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수산업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통합행정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다.

사)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장 장영복

수석부회장 김길용	정책부회장 송종국	홍보부회장 김희식
사업부회장 김동수	조직부회장 신동회	사 무 처 장 이제석
목포시회장 조인석	여수시회장 최형채	순천시회장 이상구
완도군회장 박성규	해남군회장 천재춘	진도군회장 정공진
영암군회장 채재홍	신안군회장 신용길	무안군회장 박성훈
영광군회장 신평섭	함평군회장 배상호	고흥군회장 김성윤
강진군회장 박명서	장흥군회장 문부환	보성군회장 정철수

2008년 1월 7일